

대한민국 '개천절' 및 '국군의 날' 리셉션 가미카와(上川) 대신 인사말

윤덕민 대사님,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, 외무대신 가미카와 요코입니다. 일본 정부를 대표해 오늘 리셉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.

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기분 좋은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특별한 날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도 젊은 시절에 일한의원연맹 소속으로 한국의 의원분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는데, 외무대신으로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 특별한 인연을 느낍니다.

지난번 유엔총회에서는 박진 외교부장관님과 대승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박 장관님과는 예전에 제 고향인 시즈오카(静岡)에서 조선통신사 이벤트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, 이러한 옛 인연 또한 소중한 여기며, 함께 일한 관계 발전에 매진할 생각입니다.

한국은,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입니다. 오늘날의 전략 환경을 감안하면 일한·일한미의 협력이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.

금년 3 월 이후, 일한 간에는 실로 6 차례에 이르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, '셔틀외교'가 복원되는 등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올랐습니다. 저도 향후의 방한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정부 간뿐만 아니라 일한의 기업과 기업인의 연결 고리에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. 관광객 수도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. 방일 한국인 수는 상반기에만 313 만 명이었고, 방한 일본인 수는 86 만 명이었습니다.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 양국의 인연의 끈을 강화하고 있다.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

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, 이제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문화를 접하면서, 더 넓은 세계를 무대로 함께 글로벌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절차탁마한다. 그런 장면을, 저도 약 반년 전에 관여한 국제회의에서 목격했습니다.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매우 믿음직스럽고 장래가 기대됩니다.

끝으로, 오늘 리셉션이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되어, 그 인연이 미래 일한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큰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일한 관계의 더 큰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